

## 오차대에서의 한 학기

신아란(한국·계명대학교)

제가 오차노미즈 여자 대학에 온 것은 2013년에 한 번, 그리고 올해 4월부터로 2 번째입니다. 2년 전에는 오차노미즈 일본어 여름 프로그램 제 1회 참가자로, 올해는 교환학생으로 오차노미즈 여자 대학에 와서 여러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참가자로, 자원봉사자로 참가했습니다.

저는 교환 학생으로 오차노미즈 여자 대학에서 배운 것, 느낀 것과 자원봉사자로 느낀 것, 2가지로 나눠서 쓰려합니다.

저는 글로벌 문화 학환에 소속되어 있지만, 유학생 대상의 강의와 글로벌 문화 학환의 수업 외에도, 여러 학부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강의는 모리야마 교수님의 ‘언어와 문화’와 미야우치 교수님의 ‘민속학’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의들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언어와 문화’ 수업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삼국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소 민감한 주제인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인, 중국인들과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모든 일본인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더 이 수업을 듣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속학’ 수업에서는 옛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교과서나 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진짜 일본을 배울 수 있었기에, 더 흥미로웠던 수업이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낫토나 연어의 소비량의 차이나, 조우니의 유무, 옛 일본의 의식주 문화 등을 배웠습니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어렵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속도도 빨라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스스로의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인들과 친해지기 이해, 여러가지 이벤트에도 참가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참여한 이벤트는, OIC 요리회였습니다. 오차노미즈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서로 도우면서 요리를 만들고, 이야기하고, 같이 먹으면서 노는 가벼운 이벤트였습니다.





오차노미즈 학생들은 모두가 친절하고 상냥해서, 아직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저도 학생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차노미즈일본어 여름 프로그램, 국제 교류의 저녁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벤트에 참가해서, 그 곳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생긴 것이라는 걸, 자원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 오차대에 왔을 때, 저희들을 위해 여러 준비를 했을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들처럼 열심히 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배우는 언어와, 이벤트 등을 준비하면서 돕는 언어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와 같은 여러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 경험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느끼거나, 배우거나 하면서, 자신의 일본어 실력도 높여갈 생각입니다.